

화재로 잃은 보금자리 119행복하우스 세운다

전북도, 저소득층 피해주민에 주택재건 지원

전북도는 불의의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대해 주택재건 지원 사업의 일환인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20일, 정읍시 감곡면 인근 마을에서 오전 11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1호 119행복하우스 앞 마당에서 그동안 사업에 대해 추진한 경과를 보고하고 현관 제막식과 행복열쇠 전달식, 축사, 기부증서와 후원서 전달, 주택내부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복열쇠는 송하진 도지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전달, 소동화 초록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이 입주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후원서와, 난방비 기부증

서를 전달하고 김영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생필품지원 후원서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선재 소방본부장, 김종철 도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이익규 시의원, 신동선 심미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종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소동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 김영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또 한 번 119행복하우스라는 기적을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119행복하우스에 도움주신 분들

게 감사드리고 도에서도 119행복하우스 사업이 복지정책에 정식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행복하우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의 처참함을 목격하면서 불의의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들의 처지를 보며 마음 아파하다가 불타버린 찌꺼기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움틀 수 있게 하고자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올해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다.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발생한 화재 피해주민 중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로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8월 22일 보일러실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면 화재피해주민이 선정됐다.

/김진성 기자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

2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북도청에서 희망2018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참석자들이 희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위험 도사리는 학교 안... 학생안전 빨간불

학교 계단 논슬립 사고
지난 한해 291건 발생
점검 등 대책마련 시급



슬립 사고는 지난 2014년 305건, 2015년 301건, 2016년 291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논슬립사고는 초등학교는 354건, 중학교는 262건, 고등학교는 281건이다.

이와 함께 학교내 배수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배수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풀질과 파열, 그리고 열상과 자상 등 학생들에게 큰 상

처를 남기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학생의 안전이 학교에서 가장 큰 과제인데, 이러한 학생안전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 안전공제회 등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치료비를 지원하기 전에 학교의 안전시설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한창 성장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들이 병원신세를 지게 된다면,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바지락 종자 100만마리, 고창 갯벌연안에 무상 방류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바지락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 생산한 바지락 치패 100만마리(각각 0.8cm~2cm 내외)를 21일 고창 갯벌연안에 무상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은 올해 5월에 고평에서 채취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 유생단계부터 약 6개월간 사육관리하여 질병검사를 실시

한 우량종자로서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3cm이상)으로 성장하여 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지락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중 하나로 다양한 음식 재료로 이용되며 특히 어미노산 일종인 타우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숙취해소와 간 해독기능에 효과가 있고, 환

자의 체력증진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바지락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한 후, 2013~2016년 까지 총 2,120천 만마리의 우량치패를 서해연안에 방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바지락뿐만 아니라, 도내연안 갯벌에 서식 가능한 다양한 패류에 대한 종자생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민연금공 이사장 직속 '미래혁신기획단' 출범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이사장 직속 '미래혁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속도감이 있는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혁신기획단은 3개팀 11명으로 구성되며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입지관리, 연금급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제안, 지역상생발전 관련 계획수립 업무 등을 추진한다. 향후 있을 임원선발 등의 인사와

후속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 30년 준비를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복구 행정력 올린

문 대통령, 수능 최우선
추후 재난 대비 재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임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8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을 미리 마련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신 남방정책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신 남방정책은 신 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범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 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